

내원자 설문조사

가장 관심많은 질병은 “간기능이상”

건협 서울특별시지부는 지난 4월 25일부터 1달간 부속의원 내원자 및 건강관리 공개강좌 참석자를 대상으로, 건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내원자들의 건협을 찾게 된 동기, 건강에 관한 평소의 관심도, 건강관리법, 성인병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건강관리 사업 및 보건계몽사업의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글은 이번에 실시한 설문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건강관리에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

1. 서론

요즘들어 과거에 비해 자신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이 많아져가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각종 마스크를 통한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계몽활동의 결과로, 성인병에 대한 두려움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향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신체에 이상이 있어 비로소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음으

로써 전체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40대 남자의 사망원인 중 성인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할 때,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고 행동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보건교육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번 서울지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국민건강사업 및 보건계몽활동의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

2. 본 론

설문에 응답한 내원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20대 17.9%, 30대 28.1%, 40대 24.8%, 50대 16.2%, 60대 11.3% 등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 특히 30-40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성인병에 대한 관심이나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생활의 안정적 기반이 확보되는 시기인 30-40대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원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강서구가 24.2%로 가장 많고 기타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

이것은 편리해진 교통, 본회의 친절함, 본회에 대한 신뢰도의 향상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의 결과로 평가되어진다. 그러나 건협 서울지부 주변지역인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지역적 편리함, 구전 홍보의 결과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앞으로 타 지역 주민에 대한 본회의 보다 높은 관심의 확대와 지속적인 계몽 활동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건협을 알게된 동기는 응답자의 34.7%가 주변 사람들의 권유나 이야기를 듣고 온 경우이며, T.V, 신문, 잡지 등을 보고 온 경우가 43%를 차지했다. 이것은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확대되면

서 구전홍보가 정착되어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으며, 현대인의 생활에 있어 매스콤이 차지하는 비중을 실감케 하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그만큼 매스콤을 통한 공신력의 확보도 앞으로 건강관리 사업의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한편, 건협을 찾게된 동기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5.3%가 신체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어서라고 말했으며, 질병의 예방이나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찾아온 사람은 47.5%였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사후 약방문격의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0-40대의 경우가 특히 신체의 이상이 있어야 비로소 병원을 찾는다고 응답해 성인성질환의 예방적 차원의 관리의 중요성 계몽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년에 비해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게된 사람이 많아진 점이나, 정기적 건강관리나 질병의 예방을 위해 본회를 찾은 경우도 47.5%나 된다는 것은 앞으로의 국민건강관리 정착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평소의 건강관리법으로 많이 선택되고 있는 것은 운동이나 취미 활동이 41.1%, 식이요법이 20.0%, 정기 건강검사를 통해서가 17.9% 등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전한 활동을 통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방법

도 다양해 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특히 과거의, 영양섭취 등을 통한 건강관리 보다는 운동, 취미, 식이요법 등이 선택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식생활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내며, 이제는 신체의 건강과 함께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함을 인식한 결과라 하겠다.

한편 성인병의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86.1%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특히 20-50대 전반에 걸쳐 고르게 이렇게 응답함으로써, 성인병의 위해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기적 건강검사를 통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아직까지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를 통한 예방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어 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장 먼저 검사하고 싶은 질병에 관해서는 간기능이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 활동에 따른 과음, 과로, 스트레스 등이 간을 혹사하고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 특히 관심이 높은 질병을 살펴보면, 20-40대는 간기능, 40-60대는 고혈압, 40-50대는 당뇨병 질환 등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반드시 옳은 평가라고 할

수는 없으나 통계적으로 볼 때 각 연령층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질병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3. 결 론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경제 성장을 통한 생활 수준의 향상은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그만큼 정기 건강검사와 일상 생활에 있어서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방차원의 정기 건강검사라든가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 치료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으며, 설사 알고 있더라도 바쁜 생활을 핑계로 건강관리가 뒤로 미루어지고 있음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건교육이 정착되어야함과 건강관리 체계의 올바른 정립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 성인병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요즘, 이러한 건강관리 제도의 정착만이 진정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기억해야겠다.

